

2018년도 전북도정 주요업무계획

전북도, 새로운 천년 비상 '날갯짓'

새천년 도약 '10개 핵심프로젝트' 강력 추진... 8대 분야별 도정 역점시책도 지속

전북도가 4일 "천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시작하겠다"며 2018년도 주요 도정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전북도가 발표한 올해 도정 운영 방침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를 맞아 천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전북의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올해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지방분권의 꿈을 실현할 새로운 자치정부가 출범하는 뜻 깊은 해로,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半九十(반구십리)'의 자세로 건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이다.

도는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제로 전라북도 천년 미래를 견인할 '새천년 도약 핵심프로젝트' 10개를 발표했다.

▲도민의 자존감 제고, 전북 역사·문화 재조명 프로젝트 추진 ▲농업의 블루오션, 스마트 농식품 농생명밸리 조성 ▲신해안관광벨트, 고군산군도 활성화 ▲아름다운 전북山河, 한국 힐링여행 1번지 가꾸기 ▲사릉팔달 교통 물류망 전북 SOC 대동맥 구축 ▲2018년 전국체

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미래세대 소득 일자리 보고 4차산업혁명시대 특화 혁신산업 육성 ▲글로벌 투자중심지, 명품 새만금 조성 ▲전북발전의 원동점프,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준비 ▲제3의 국제금융허브, 농생명 연구금융중심지 도약이다.

도는 도정 8대 역점시책도 추진한다.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전 전북도 구현 ▲심리농정 기반 농식품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 ▲전통문화예술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토탈관광 완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탄소중심의 융복합산

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도민이 행복한 복지환경 구축과 대한민국 대표 힐링명소 조성 ▲차질 없는 세계잼버리 준비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지역특화형 개발로 시군 균형발전 촉진이다.

송 지사는 또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북 뒤 찾기에 적극 동참해 주는 등 지난해까지 전북도가 도약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다져왔다"며 "올해는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박지원 '개혁신당 20명 이상... 나는 안 간다'

국민의당내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 대표격인 박지원 전 대표는 4일 반대파 의원들의 신당창당 '맞불'과 관련해 "어제 11명이 왔고 합류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갖출 20명 이상은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16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맞불적 신당창당을 '개혁신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데 제약이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는 "출당을" 안 해 주면 (당적을) 거기 놓고 우리하고 활동하면 된다"고 했다. 통합신당에 당적이 흡수돼더라도 실질적 활동은 개혁신당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한 네 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인철수 파에서는 (개혁신당 참가자가) 7~8명 밖에 안 된다고 하는가 하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분들에게 '통합신당의 당대표가 돼라'고 얘기하며 마타도어를 한다"고 안 대표 측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박지원이 거기 가서 대표를 하면 하늘나라에 계시는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너 잘했다 할 거냐"라고 발언, 이른바 박·정·전(박지원·정동영·전정배)에 대한 안 대표 측의 통합신당 대표 제안설을 일축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바른정당의 박·정·전 배제 공식 요구 가능성이 계속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안 한다는데 나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를 (그가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니까 꽃가마를 태워줘도 안 간다"고 했다. 그는 "꽃가마 태워 줘도 안 가니까 제발 너희들끼리 잘 하라"라며 "나는 안 간다. 싸이파이"라고 거듭 비꼬았다.

그는 전날 유 대표가 자신에게 '빛덩어리 정당' 발언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유 대표가) 국민들에게 빛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믿고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 대표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 선언서를 흥청망청 접을 거론하며 "유 대표는 흥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똑같다"고 비난했다. /뉴스

조배숙 의원 "국민의당 목표는 햇볕정책 계승"

"통합신당 강령토론에 아연실색... 꿈수통합에 연민의 정마저 들어"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인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4일 통합신당 강령 마련을 위한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서 햇볕정책 반영을 두고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한번더도 햇볕정책의 공과를 논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었는지 국민들께서 평가해주시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등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고 강령정책에 못 박고 있다"며 "국민의당의 목표는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를 편의대로 해석하고 햇볕정책마저 폄하하며 바른정당과 꿈수통합의 역사를 부리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의 정마저 든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수구생전적 이념코드가 맞는 분들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안철수 대표를 위시한 당내 바른정당 통합파가 당을 떠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바른정당은 수구생전적 시각이 자유한국당과 쌍관"이라며 "국민-바른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통합신당 강령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측에서 햇볕정책 "재검토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여기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햇볕정책을 건드리면 수도권도 전멸한다"고 반박했다. /뉴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포옹하고 있다.

최경환·이우현 구속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은 4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동시 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경환 의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달 5000만 원씩 특별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후임 국정원장에게는 매달 상납액을 1억으로 늘려달라는 요구했다는 새로운 정황도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우현 의원 역시 본인은 부정하지만 본인의 공천심사위원 활동과 국토교통위원 업무 과정에서 받은 돈이라는 혐의가 짙은 만큼, 철저히 수사해줄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두 의원의 신병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한국당이 여야 3당이 합의했고 대선공통공약이었던 개혁특위 연장 문제를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어 올라온 민생법안을 법사위에서 가로막으며 임시국회를 파행시켜 결과적으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던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에 대해 함구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2018 자연이 주는 휴식 장수에서 만나 보세요~~!!

논개사당

장수향교

사과시험포

장수승마체험장

방화동자연휴양림

장수물MALL